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담당자 : 진상훈 심의관  
공보관실 : ☎ 3480-1451



## 「국제법률 심포지엄 2012」 개막

- 「국제법률 심포지엄 2012」가 국·내외 저명한 법률가, 교수, 언론인 등이 참가한 가운데 2012. 10. 10. [수]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2층 중앙홀에서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개막함
- 주제발표 첫 날인 10. 11. [목] 오후 존 Z 리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애플-삼성전자 소송 등의 사례를 토대로 미국 배심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임
- 이튿날인 10. 12. [금] 오전에는 ‘소통[미디어와 사법]’을 주제로, 영화 ‘부러진 화살’이 법원에 미친 영향, SNS와 법관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될 예정임

### 1. 개요

○ ‘소통과 참여’를 주제로 10. 12. (금)까지 총 3세션에 걸쳐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해럴드 홍주 고 박사(미국 국무부 차관보, 전 예일대 로스쿨 학장), 존 Z 리 미국 연방법원 판사(루시 고 등에 이어 한인 사상 3번째 미국 연방법원 판사), 이규순 브라질 연방법원 판사(한인 최초 브라질 연방법원 판사), 장뤼끄 브와냐르 프랑스 과기원 판사 등 해외 저명 법조인과 김상헌 NHN 대표, 진중권 동양대 교수 등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가함

○ 이번 심포지엄의 발표자료 및 토론자료는 각 세션이 진행되는 대법원 4층 대회의실 현장에서 참가자를 대상으로 배부되며, 기자단에도 배포할 예정임

## 2. 주요 논의 주제

○ ‘소통(법원은 국민 속으로)’을 주제로 10. 11. (목)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제1세션에서, 성낙송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법원의 소통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미국 법원의 소통전문가인 LA 지방법원 리처드 프루인 판사가 국민과의 소통의 필요성과 미국 법원의 소통 프로그램 및 당면 과제를 소개함

○ 같은 날 오후 2시 30분부터 ‘참여(국민은 법원 속으로)’를 주제로 펼쳐지는 제2세션에서 존 Z 리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미국 배심원제도 : 시민참여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배심원제도의 특징, 변천과정, 장점과 정책목표, 리스크 최소화 방안 등에 관하여 맥도날드 커피소송, 애플-삼성전자 소송, 로드니 킹 사건 등 풍부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할 예정임. 특히 배심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증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부적절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미국 배심제도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고, 그 정당성 확보방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예정임

○ 이어서 프랑스 파기원 형사부 중죄사건 전담판사인 장 뤼끄 므와냐르 판사가 프랑스의 형사 배심원단과 참심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동경 지방재판소 부장판사인 미우라 토오루 판사가 일본 형사재판에서의 재판원제도 도입과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중국 정법대 오일환 교수, 브라질 연방법원 이규순 판사 등이 재판 절차에 대한 각국의 국민참여 현황에 관하여 토론을 벌일 예정임

○ 이튿날인 10. 12. (금) 오전 10시 20분부터 ‘소통(미디어와 사법)’을 주제로 열리는 제3세션에서는,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유의선 교수가 「대중매체에 비친 사법부의 모습」을, 김기훈 사이람 대표가 「소셜미디어 시대의 법원」을,

미국 국립 주법원센터의 메리 켈벨 맥퀸 회장이 「미디어와 사법」을 발표하고,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재강 방송기자연합회장,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지정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유의선 교수는, 영화‘부러진 화살’의 사례를 토대로 영화가 법원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전략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한편, 해럴드 고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10. 12. (금) 오전 9시 30분 제3세션에 앞서 「Why Do Koreans care about International Law?» 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하고,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고등법원 대강당에서 「The Rule of Law in International Affairs」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끝]